



한-중남미의회외교포럼 남미지역 및 한-브라질·파라과이·우루과이 의원친선협회 상대국 방문 결과보고



1. 방문목적

- 남미지역 의회 및 정부 고위급 인사와의 교류를 통한 한.중남미 간 우호협력 관계 증진
- 한-메르코수르(MERCOSUR) 무역협정의 조속한 타결을 위한 의회차원의 지원 및 경제협력 확대 계기 마련
- 한반도 평화구축에 대한 방문국의 지지 확보
- 현지 동포 및 진출 기업 격려 및 고충사항 청취

2. 방문국

-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 미국(경유), 칠레(경유)

3. 방문기간

□ 2019. 7. 5.(금) ~ 7. 16.(화) [9박 12일]

4. 방문단

□ **한-중남미의회외교포럼**: 김무성(자유한국당, 회장).정진석(자유한국당).정운천(바른미래당).김병관(더불어민주당) 의원

□ **의원친선협회**: 원혜영(더불어민주당, 브라질 회장).김태년(더불어민주당, 파라과이 회장).김경협(더불어민주당, 우루과이 회장).윤영일(민주평화당).송언석(자유한국당).손금주(무소속) 의원

※ 의회외교활동 지원 : 손중선 아태1담당 . 강은미 국제협력관(국제국 아시아태평양과)

5. 주요일정

| 국가 | 일자 | 시 간 | 주 요 일 정 |
|-------------|---------------|----------------------------------|-------------------------------------|
| 미 국 | 7. 5 (금) | 09:20 ~ 10:10 | 인천 → 애틀랜타 이동 (KE035, 飛13:50) |
| | | 23:23 ~ 10:00(+1) | 애틀랜타 → 리우데자네이루 이동 (KE7291, 飛09:37) |
| 브 라 질 | 7. 7 (일) | 16:40 ~ 18:25 | 리우데자네이루 → 브라질리아 이동(G3 2044, 飛01:45) |
| | | 20:00 | 김찬우 주브라질대사 주최 관저만찬 |
| | 7. 8 (월) | 09:00 | 자이르 보우소나루 대통령 예방 |
| | | 11:00 | 에두알두 보우소나루 하원 외교국방위원장 면담 |
| 7. 9 (화) | 19:00 | 루이스 미란다 한-브라질 의원친선협회 주최 환영만찬 | |
| | 06:55 ~ 08:45 | 브라질리아 → 상파울로 이동(G3 1409, 飛01:50) | |
| | | 11:50 ~ 12:55 | 상파울로 → 아순시온 이동(G3 7480, 飛02:05) |

| 국가 | 일자 | 시 간 | 주 요 일 정 |
|------------------|------------------|-------------------|---|
| 파 라 과 이 | | 14:00 | 블라스 야노 상원의장 면담 |
| | | 19:00 | 안민식 주파라과이대사 주최 관저만찬 |
| | 7. 10 (수) | 09:00 | 우고 벨라스게스 부통령 면담 |
| | | 10:00 | 빠드로 알리아나 하원의장 면담 |
| | | 12:00 | 업무오찬(KOTRA, 임업진흥원, 한국학교) |
| | | 15:00 | KOICA사업현장(산빠블로 모자병원) 시찰 |
| | | 19:00 | 동포 및 지상사 간담회 |
| | 7. 11 (목) | 10:00 | 루이스 가스텔요니 외교장관 면담 |
| | | 14:50 ~ 17:40 | 아순시온 → 몬테비데오 이동(H1 3779, 飛01:50) |
| | 우 루 과 이 | | 19:00 |
| 08:00 | | | 한-메르코수르 협상대표단과의 조찬간담회 |
| 7. 12 (금) | | 10:00 | 루시아 토폴란스키 우루과이 부통령 겸 상원의장 및 우-한 의원친선협회단 면담 |
| | | 19:00 | 황성연 주우루과이대사 주최 관저만찬 |
| 7. 13 (토) | | 12:50 ~ 14:24 | 몬테비데오 → 산티아고 이동(LA 405, 飛02:34) |
| 칠 레 | | 19:00 | 정인균 주칠레대사 주최 관저만찬 |
| | 7. 14 (일) | 22:55 ~ 09:30(+1) | 산티아고 → 뉴욕 이동(LA 532, 飛10:35) |
| 인 천 | 7. 15 (월) | 14:20 ~ 17:20(+1) | 뉴욕 → 인천 이동(KE 082, 飛14:20) |

6. 방문결과 및 주요성과

□ 의회 및 정부 고위급 인사와의 교류를 통한 한·중남미 간 우호협력 관계 증진

- 이번 방문의 면담대상은 대통령, 부통령, 상·하원의장, 외교장관 등으로 중남미 지역 고위급 인사 교류의 계기를 마련하고, 기존의 상대국 의원친선협회장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의회외교의 장을 넓힌 것으로 볼 수 있음.

브라질 방문의 경우, 한국에 대한 브라질 신정부의 호감을 바탕으로 양국 수교 60주년을 맞이하여 향후 제반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파라과이 고위급 인사 역시 한국에 대한 깊은 호감을 표시하면서 한국의 발전경험 공유를 통한 협력 확대 의지를 적극 피력하였는바 파라과이와 실질협력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우루과이도 최근 사회보장협정 체결, 복합화력발전소 분쟁건 해결로 형성된 양국간 협력 분위기를 유지하여 미래 지향적 협력 관계를 설정하는데 방문단과 의견을 같이하였음.

- 특히, 브라질의 경우 보우소나루 대통령을 예방하였는바, 의회외교 방문단이 대통령을 예방하고 외교현안을 논의하는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브라질 정부의 한국과의 경제협력 확대 의지가 작용한 것 외에도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당선 전 연방하원의원 자격으로 방한했을 때 우리 국회 차원 특히, 한국-브라질 의원친선협회의 환대를 통해 얻었던 한국에 대한 호감¹⁾도 예방 성사에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²⁾되는바 초청 및 방문이 연계된 의회외교의 모범적인 네트워크 구축 사례로 볼 수 있음.

1) 보우소나루 대통령, 에두알두 보우소나루 하원 외교국방위원장(대통령과 함께 방한) 모두 면담 시 한국에 대한 호감을 여러차례 표현하였음.

2) 김찬우 주브라질대사 주취 관저만찬 시 언급

따라서, 향후 국회차원에서 중남미지역 유력인사 초청을 적극 검토하거나 국제교류재단의 ‘중남미 국가개발 미래비전 공유사업³⁾’ 등의 사업 참석 계기 방한하는 중남미지역 유력인사와 국회 한-중남미 의회외교포럼 및 의원친선협회 회원과의 면담을 적극 주선하여 이번 방문으로 마련된 중남미지역 고위급 인사 교류 추세를 유지하여 향후 각종 외교현안 대응 시 한국에 대한 우호 및 지지 여론 형성의 토대⁴⁾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한편, 브라질 에두알두 외교국방위원장과 우루과이 루시아 토폴란스키 부통령 겸 상원의장은 의회 간 협력을 강화하고 각국의 선진사례 공유를 위한 의회차원의 협력 협정서 체결 의견을 제시하였는바, 의회차원의 협력을 제도화할 수 있다는 장점과 함께 다른 국가와의 형평성, 기체결된 협정서⁵⁾와의 관계, 체결 주체 등을 고려하여 추진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임.

□ 한-메르코수르(MERCOSUR) 무역협정의 조속한 타결을 위한 의회차원의 지원 및 경제협력 확대 계기 마련

- 방문단은 한-메르코수르⁶⁾ 무역협정⁷⁾ 제3차 협상이 우루과이에서 개최 중인 상

3) 국제교류재단에서 2011년부터 중남미지역 각 국의 유력 장·차관급 인사를 초청하는 사업.
 4)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브라질 방문시 면담한 에두알두 보우소나루 하원 외교국방위원장을 주미대사로 지명(7.12)하였는바, 의회 청문회 등 절차를 통과할 경우 주미대사로 임명 가능함. 에두알두 보우소나루는 보우소나루 정부 출범 이후 ‘실질적인 외교장관’이라는 평가와 함께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만사위 재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보좌관,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수석 전략가 등과 친분을 쌓아옴(연합뉴스, “브라질의 트럼프‘ 보우소나루, 셋째 아들 미대사로 지명 논란”, 2019. 7. 12.)
 5) 대한민국 국회와 우루과이 하원은 2009년 2월 페르도모(Perdomo) 하원의장 방한시 김형오 국회의장과 페르도모 하원의장 간 협력의정서를 체결한바 있음.
 6) 남미공동시장(MERCOSUR)
 - 1991년 창설 /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베네수엘라로 구성된 관세동맹. 다만, 베네수엘라는 메르코수르 회원국 지위가 정지된 상태임.
 - 관세동맹으로서 역내 상품 교역을 자유화하고 역외공동관세 부과(관세 부문은 메르코수르 공동차원에서만 무역협정 체결 가능
 - (경제규모) 세계 8위 수준의 경제권으로, 중남미 총 GDP의 76%(2.7조불), 무역의 24%(110억불) 차지
 7) 한-MERCOSUR 무역협정(TA, Trade Agreement)
 - '18. 5월 한-MERCOSUR 무역협상(TA) 개시 후 세 차례의 협상

황에서 메르코수르 회원국인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의 고위급 인사와의 면담을 통해 동 협정의 타결로 한국과 메르코수르 간 교역량 증가를 통한 경제 외연 확대 외에도 한국기업의 투자 및 진출이 용이해질 것이므로 궁극적으로 메르코수르 회원국의 경제발전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의견을 개진하여 면담 인사들의 동의를 이끌어 내었는바 한국기업의 진출 기대를 높이는 등 경제협력의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볼 수 있음.

나아가 방문단은 동 협상의 조속한 타결과 향후 비준동의절차에서 방문국 정부 및 의회의 적극적인 지지를 요청하였고 이에 면담인사들은 타결과정 및 의회동의 절차에서 지원의사를 표명하였음

- 금년 5월 출범한 의회외교포럼은 외교현안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목적⁸⁾으로 하고 있는바, 이러한 방문단의 외교활동은 후술할 복합화력발전소 분쟁 해결 활동과 함께 한-중남미 의회외교포럼 출범 후 첫 사업인 이번 방문에서 의회외교포럼 출범 취지에 부응하는 활동을 충실히 전개하였음.
- 한편, 방문단은 우리 동 협상의 우리 협상단과의 간담회에서 메르코수르 측이 육류 수출을 위해 요구하고 있는 검역 조건은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사항임을 명심하고 협상에 임해야 하며, 협상 타결에 따른 국내 피해산업에 대한 면밀한 보호 조치를 협상단계부터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등 국민의 이익에 부응하는 내실 있는 협상 타결을 위한 활동도 함께 수행하였음.

1차 협상 : 18. 9월 우루과이 / 2차 협상 : 19. 4월, 서울 / 3차 협상 (19. 7. 8. ~ 12., 우루과이)

- 메르코수르측은 FTA 용어 사용을 기피하여 TA(Trade Agreement) 용어 선호

8) 「국회의원의 외교활동 등에 관한 규정」(국회규정 제850호) 제8조의2 ① 국회의장은 중요한 외교현안에 대한 신속한 대응 등 의회외교활동을 강화하고 「공공외교법」 제2조에 따른 공공외교를 의회차원에서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가별 또는 지역별로 의회외교포럼을 구성할 수 있다.

□ 현지진출 우리기업 관련 분쟁 해결 노력 전개

- 우루과이 전력청이 발주한 복합화력발전소 건설 관련 우리기업과 발주처는 지체 보상금과 성능보장에 대한 이견으로 분쟁을 이어오고 있는 상황이었음⁹⁾.
- 방문단은 분쟁 해결을 위해 우루과이 루시아 토폴란스키 부통령 겸 상원의장에게 우리 문희상 국회의장의 친서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친서를 건의하였고, 우리 국회의장은 방문단의 건의를 받아들여 방문단이 친서를 전달하기로 하였음.
- 방문단이 우루과이에 도착(7. 11)하기 전인 7월 8일 발주처와 우리기업 간 분쟁 타결을 위한 잠정합의가 이루어졌는바, 루시아 토폴란스키 하원의장과의 면담에서 방문단은 분쟁이 타결되어 다행스럽다는 의견과 함께 향후 복합화력발전소가 양국 간 경제 협력의 상징물이 될 수 있도록 부통령 겸 상원의장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였고, 부통령 겸 상원의장은 분쟁이 소송이 아닌 합의로 원만하게 종결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향후 양국이 미래지향적으로 협력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였는바 동 면담을 통해 분쟁 타결에 대한 우루과이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로 볼 수 있고 향후 분쟁의 최종적인 타결에 동 면담이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한반도 평화구축에 대한 방문국의 지지 확보 및 현지 동포진출 기업

격려 및 고충사항 청취

9) 우루과이 복합화력발전소의 총공사규모는 6억 2천 8백만 미불이며, 공사기간은 당초 36개월에서 65개월로 연장된 상황으로 발주처는 공기 지연 벌금에 상응하는 보상과 성능 보증 시험 절차서 변경을 위한 보상을 요구하는 반면, 우리 기업은 노조파업과 도면 승인 지연 등에 따라 입은 손실 보상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고 있었음.

기업명 공개에 따른 우리기업의 피해우려와 분쟁 타결 조건을 2019년 8월 중순까지 미공개하기로 한 분쟁 당사자 간 합의사항에 따라 복합화력발전소 및 기업명은 공개하지 않음.

- 방문단은 개별 면담 시 한반도 평화구축에 대한 방문국 정부 및 의회의 지지
에 감사를 표하고 향후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한국의
노력에 방문국의 지속적인 지지를 요청하였으며 이에 면담인사 모두 지지
의사를 표명하였음.
- 방문단은 미주지역 이민의 교두보로 기능했던 파라과이를 방문하여 동포 및 지
상사 대표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재외동포의 영주귀국 신고절차 간소화 및 신
청대상 연령 하향조정 등 고충사항을 접수하여 입법적 해결 방안을 검토하
거나 해당 부처 등에 건의하기로 하였음.